

화순 청풍초, '2022.겨울사계절 행복학교' 운영 성황리에 마쳐

스피치 발표회·김장 김치 담그기 체험·마을회관 방문 봉사활동 바둑대회·찾아오는 마을학교 체험·알뜰 바자회 나눔장터 운영

화순 청풍초등학교가 지난 8일과 9일, 2일 동안 학교 비전 '배움과 나눔으로 꿈을 키우는 사계절 행복학교'를 위해 '겨울 사계절 행복학교'를 운영했다.

'사계절 행복학교'는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린 학생 중심 교육 활동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기획했다. 행복학교는 특정 시기의 행사와 학교 특색교육 활동을 접목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하나의 행사 추진을 위한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1년 동안 학생과 교사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의도적인 계획이 스며들도록 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평소 학생과 교사가 2학기 동안 추진해온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

점이 특징이다. 자신감 상승 유발 스피치 발표회, 우리나라 전통 음식 김장 김치 담그기 체험, 어른을 공경해요 마을회관 방문 봉사 활동을 시작으로, 평소 같고 닳은 청풍배 신의한수 바둑대회, 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과 알뜰 바자회 나눔 장터로 진행되었다.

스피치 발표회는 교과 수업 시간에 작성한 원고를 토대로 발표해보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김장 김치 담그기는 학교 텃밭에서 직접 키운 배추를 수확하여 절이고, 양념을 구입하여 버무렸다. 마을회관 방문 봉사활동을 통해 방과후 시간에 배운 바이올린과 음악 줄넘기, 노래를 동네 웃어른들께 자랑하면서 큰 웃음을 선물했다. 바둑대회와 마을 연계 프로그램도 1년 동안 꾸준히 배워온 실력으로 꾸며졌다. 더불어 알뜰 바자회 나눔장

터도 올해부터 기부해오고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성금 마련을 위해 특나는대로 소중한 물품을 수합하여 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오기까지는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탐의 결과가 있었다.

5학년 학생은 "김장 김치 담그기를 하면서 직접 재배한 배추를 수확과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담당 교사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1년 동안 교육과정 속에서 이렇게 다양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에 존경과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올해 추진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2023학년도 사계절 행복학교 프로그램이 더 깊고 풍부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고 했다. 양수열 교장은 "겨울 사계절 행복학교로 올 한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잊고 그제 봄 사계절 행복학교를 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흘렀다. 우리 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대단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사계절 행복학교를 되돌아보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더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승화하여 2023학년도 사계절 행복학교 프로그램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고흥백양중, 참여연극형 프로그램 운영



고흥백양중학교 전교생은 지난 9일 1교실에서 4교시까지 '열음봉대스타킹과 수상한 탐정단'이란 제목으로 이야기꾼 책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는 참여연극형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책 속의 등장 인물 역할을 하며 함께 추리하고 질문하며 책 속 인물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1인 다역을 하는 전문 배우가 진행하고 학생들이 상황에 맞는 배우 역할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김하은 작가의 '열음봉대 스타킹'을 대상으로 한 이 활동은 학생들이 단서의 방, 심문의 방, 의명의 방을 오가며 단서를 추적하고 등장인물을 깊이 있게 이해하며, 학생들이 책 속의 등장인물을 직접 연기해보므로써 이 시대 청소년들의 고민, 상처, 기쁨에 공감하고 이해하

는 활동이었다.

이야기꾼의 책공연을 통해 학생들은 독서 활동이 입체적인 종합 예술로 확장 가능한 적극적인 창작활동이 될 수 있음을 체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배우가 되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능동적인 독서 습관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도록 촉진하는 다리 역할까지 해주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광○○(1학년)은 "소설의 내용을 직접 연기해서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공감도 더 잘 되었어요, 마지막에 배우들이 책을 읽어주니 이해도 잘 되고 좋았어요." 라고 약간 들뜬 표정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주었다. 마○○(2학년)학생은 "단서를 가지고 추리하는 부분이 재미있었어요"라고 흥미를 보였으며, 김○○(3학년)학생은 "추리하는 것이 좀 어렵기는 했지만, 활동들이 흥미로워서 책을 꼭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해 이번 활동이 독서 활동을 촉진시켜주었음을 엿볼 수 있게 했다.

담당 교사인 송영미 선생님은 학생들이 독서를 생활화하고 등장 인물과 호흡하며 공감 능력과 감수성을 키워가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의 삶 속에 독서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스스로 성장하며 성장하는 어른으로 자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양중진초, '우리 가족 건강 체험 한마당' 대잔치 성료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소아비만 해결 '특목'

광양중진초등학교는 지난 10일 본교 체육관에서 학생 및 학부모 13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 가족 건강 체험 한마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건강 체험 활동으로 식생활 개선 등 비만예방 생활습관 형성 및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위해 마련되었다. 사전에 신청한 가정 뿐만 아니라 학생자치회, 교육복지 학생과 함께 어우러져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건강 체험 부스는 교육자료 전시 zone, 체험

zone, 이벤트 zone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체험 zone에서는 △내 몸 사용 설명서 △팝업 북 아트 △빙글빙글! 퀴즈볼렛! △푸드 아트 테라피 △가든 샐러드 만들기 등 총 11개의 부스가 운영되었다. 부스에서는 인바디, 혈압 및 혈당 측정, 건강 식생활 체험 등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건강관리 내용 및 저탄소 식생활 체험으로 진행되어 학생 및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광양=김현근 기자



목포공공도서관, '특(Talk)특(Talk) 학생 창작영화제' 개최



목포공공도서관은 지난 10일 도서관 영상(영화)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베니스·칸·목포공공도서관 학생 창작영화제

제작한 단편영화 2편 [영화제목: 프레임, 넘새왕]을 상영하는 '2022. 특(Talk)특(Talk) 학생 창작영화제'를 개최하였다.

올해 처음 개최한 특(Talk)특(Talk) 학생 창작영화제는 학생들에게 성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관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되었다.

이번 영화제는 초청 작품 [제목: 그린라이트, 플레이온, 건전지 아빠, 윤석이 떨어졌으면 좋겠어], 학생 창작 영화 상영, 주연상, 조연상 시상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출연진과의 만남, 경품 행사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되어 함께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